

종교교육학연구 제19권. pp.23~38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4. 12

현대문화와 학교 안의 죽음교육과 종교

Carl Becker(京都大學)

金在榮 譯(서강대학교)

I. 서론

모든 역사적인 문명과 전통적인 문화에서, 삶에서 죽음—현세에서 내세—로의 이행을 다루었던 사람들은 사제들이었다. 사제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죽음에 대비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죽음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쳤다. 종교는 죽음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평화와 희망을 가져다주었고, 그리고 사별을 겪은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수용을 가져다주었다. 사면들은 현세의 사람들과 내세의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을 했다. 또한 종교적 세계관은 사람들에게 살인과 자살이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했다. 내세에서 다른 범죄들과 죄가 처벌받게 될 것을 가르치면서, 또한 그들은 범죄와 살인, 그리고 자살을 막아왔다.

오늘날, 전통적 사제들과 종교적 세계관은 다소 그들의 보편적인 힘과 대중성을 잃어왔다. 계몽 사상가들은 전통적인 종교들이 고도로 계몽된 이성과 이타주의에 의해 대체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성-시몬 Saint-Simon은 과학과 사회의 종교가 그리스도교의 종교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몇몇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과학과 이성으로 대체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죽음과 죽어 감은 자신들의 묘지를 찾는 전통적인 가족에 의해 돌봄을 받고, 그들의 삶과 죽음이 의례적으로 기억되고, 그리고 전통적인 종교적 방식들로 애도되어진다. 죽음을 관찰하고 존중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아직 중요하고 익숙한 부분이다.

한국의 독립 이후 반세기 동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러한 상황은 급격하게 변해왔다. 사람들은 대도시로 이동해 갔고, 노인들은 손녀나 손자들과 더 이상 함께 살지 않는다. 익숙한 환경들 속에서 천천히 걸기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대도시는 너무 빠르고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나이 들고, 병들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은 대도시의 효율성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노인들이 나이를 먹고 병들고 혹은 점점 죽어가게 되자, 효율적인 현대인들은 노인들을 감옥과 같은 병실로 보낸다. 거기서 노인들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경제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대都市는 우리

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나이 들고 죽는 것을 잊어버리게 한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는 경험과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경험 없이 성장한다. 삶의 가장 중요한 현실—죽음—은 텔레비전, 게임, 그리고 영화에서나 보이는 하나의 가상적인 환상이 된다.

우리의 도시 생활은 비인간적이 되었다. 홀로 있다는 느낌, 곧 타자들로부터 소외되고 관계 맺고 있지 않다는 느낌은 사람들이 자신과 타자를 죽이는 것을 더욱 쉽게 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도시들은 전통적인 문화에서 발생했던 것보다 더욱 높은 살인률과 자살률을 갖고 있다. 우리는 도덕 이론뿐만 아니라 살인과 자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깊은 느낌을 가르칠 교육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수학과 과학과 언어에 관심을 두면서도, 현대 교육은 우리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언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언제 우리가 누군가를 잃고, 혹은 언제 우리 스스로 죽음에 대비해야 하는지—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치지 않는다. 과거에는 종교와 가족생활이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가르쳤다. 오늘날은 최소의 아이들만이 종교들을 배우거나 혹은 죽음에 관해 자신의 가족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다.

레비통David Leviton은 10년 전 보다 훨씬 이전에 죽음교육이 필요한 고전적인 이유의 목록을 발표했었다. 기본적으로, 레비통이 갖고 있던 이유들은 (문화들이 죽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의) 개념적 (이해)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논의하고, 사별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자살을 예방하도록 하는) 치료적인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나는 레비통이 제시한 이유들에 전부 동의하면서, 나는 그가 고찰하지 않았던 몇 가지 이유를 더 지적하길 원한다.

특히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권리와 책임감을 가르치는 것은 점점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이와 동시에, 현대인들은 정부가 죽음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월급에서 상당한 세금을 정부에 낸다. 그러므로 삶과 죽음에 대한 우리의 결정들은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공공 정책의 문제가 되었다. 세 번째로, 비인간적으로 소외된 사회에서, 죽어감과 사별의 심리학적 영향은 그들 자신이나 혹은 타자들의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상담하기 위한 커다란 필요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가족의 상황뿐만 아니라, 공립 교육의 맥락에서도 죽음교육은 중요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 나는 죽음교육의 다섯 가지 차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초등학교의 죽음교육
- (2) 중-고등학교의 죽음교육
- (3) 대학의 죽음교육
- (4) 성인의 죽음교육
- (5) 전문 죽음교육

II. 죽음교육의 다섯 가지 차원

1. 초등학교의 죽음교육

전통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은 가족들이 샤먼, 절, 혹은 묘지를 방문했을 때 그리고 가족들이 조상에 대한 기념 예배들을 지냈을 때 종교를 통해 소통했었다는 사실이었다. 오늘날 샤먼, 절, 혹은 묘지를 방문하거나, 조상들에 대한 기념 예배를 지내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 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녀에게 죽음과 내세에 대해 소통해야 하는 필요성을 갖고 있다. 조상들이 가르쳐 온 관념과 가치가 지금은 학교의 책임이 되고 있다.

죽음은 생물학의 한 사실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감정적인 사건으로서 중요하다. 인간의 죽음과 가장 유사한 것은 동물의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죽음이다: 실패, 심장병, 이혼, 상해. 죽음이 갖고 있는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아이들에게는 인간 생명의 반복불가능성과 인간 죽음의 깊은 상실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소설 혹은 영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너무도 피상적으로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비디오 게임, 영화, 그리고 만화책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많은 연구는 죽음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가 초등학교 때 시작된다는 것을 증명해왔다. 아이들이 책, 영화, 그리고 뉴스를 통해 죽음에 대해 배우면서 몇몇 아이들은 그들 자신이 곧 죽을 것이거나, 혹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일으킨다. 다른 아이들은 자신들의 부모가 갑작스럽게 죽을 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의지할 데 없이 남겨질 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두려워한다. 그 아이들은 그러한 위험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심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아이들은 어떤 위험들이 그들의 삶을 덮칠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아이들은 교통사고, 집안의 화재, 그리고 역사로부터 죽음을 피하는 방법을 배운다. 아이들은 또한 자신의 삶이 우리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운다. 건설, 채광, 어업, 군인, 혹은 제3세계 농업에서와 같은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하철과 교각, 에너지와 자원들, 국가의 안전과 열대 음식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신들의 죽음을 각오하거나 혹은 목숨을 단축시킨다. 이러한 사실은 삶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킨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유와 안전, 건강과 향유를 위해 자신들의 삶을 내 놓거나 혹은 각오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빛을 지고 있다.

또한 아이들은 자신들의 삶이 단지 인간을 위해 길러지고 도살당하는 소와 돼지, 닭과 오리를 먹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배운다. 어느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생들 자신의 닭 혹은 오리를 죽이거나 도살하도록 요구한다. 다른 학교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도살장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동물을 관찰하도록 하게 한다. 이 프로그램

램들은 비효율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인간 생명의 중요성이 동물의 생명을 희생하는데 의존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목적을 둔다. 그러나 어떤 학생들은 동물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유사하다는 점을 느낀다. 만약 학생들이 육식을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이것은 그들의 부모에게 걱정을 끼친다. 다른 학생들은 도살이 자연적이고, 쉽고, 혹은 심지어 자극적이라는 느낌을 보이면서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만약 동물을 도살하는 것이 그리 가혹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인간을 죽이는 것도 역시 그리 무서운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단순히 우리가 동물을 도살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은 삶과 죽음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다.

특히 실패나 괴롭힘, 혹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후 일부 아이들은 자살을 생각한다. 한편으로, 늘어나고 있는 취학연령의 아이들이 자살과, 사고, 혹은 다른 이유들로 인해 자신들의 부모를 잃고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자살은 나쁜 것이다" 혹은 "죽음은 무서운 일이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아이들은 자살이 해결이 아니라 실수라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고, 동시에 사랑하는 부모를 잃어버리는 것으로부터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초등학교에서의 죽음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다. 아이나 혹은 아이의 부모가 죽으면, 일부 학교는 그런 상황들에 반응하기 위해 특별 수업을 계획한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처럼, 학교 죽음교육은 다른 수업들에 첨부되는 별도의(separate) 과목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학교 죽음교육은 역사나 생물학, 문학과 사회 과목에 통합되어야 한다.

2. 중-고등학교의 죽음교육

고등학생 나이에 이르면, 학생들은 가치를 문제삼기 시작한다. 그들은 해야 할 것들이 말해져야 한다는 것을 원할 뿐 아니라, 적절한 행동을 위한 이유들을 이해하기도 원한다. 종교 교육이 십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모든 문화는 죽어가고 고인이 된 그 문화의 노인들을 돌보아 왔고; 모든 문명은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한 법칙이 영구히 지속되는 협동을 필요로 하고; 모든 종교는 이타주의와 자기-비판, 자기희생, 현세에서의 말과 행위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하나의 유일한 몸 혹은 하나의 유일한 세대를 넘어 삶의 지속성에 대한 어떤 형식을 가르친다. 이러한 종류의 종교적 가르침은 무의미, 환상, 허구, 혹은 환각이 아니다. 그것은 많은 물리학이나 화학 교육보다도 정신적인 평화와 사회적 안정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공통성을 강조한다. 그것은 우리의 죽음이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죽는 방식들은 우리의 가족, 사회, 환경, 그리고 미래의 삶에 지

속적인 영향을 준다. 그것이 바로 점점 많은 국가와 정부가 왜 죽음교육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가의 이유인 것이다. 다른 종교들보다 우위인 한 종교를 숭배하지 않고도, 각 종교적 전통의 지혜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감탄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 죽음교육은 지성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썸이면 학생들이 스스로 다양한 선택을 결정하는 데 충분한 나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일부 선택들—음주, 흡연, 약물, 헬멧 없이 오토바이를 타는 것, 혹은 결혼 전 임신—은 비합법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와 같은 경험을 실제로 해보도록 유혹받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학생들은 운전 교육, 건강 교육, 그리고 성교육을 중·고등학교에서 배우고 그것은 모두 죽음과 죽어감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그들이 현재 아이를 임신하기 위해 성관계를 맺는 때와 아이를 갖지 않고 성관계를 맺는 방법을 선택할 권리 그리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우리는 성적인 질병들로부터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그리고 알코올과 담배 그리고 그들의 부모가 소비하는 다른 해로운 것으로부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보호할 권리 그리고 책임을 갖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새 아기가 건강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미리 알고, 그리고 그런 다음 아기를 낳을 것인지 혹은 낙태할 지를 결정할 권리 그리고 책임을 갖고 있다.

동시에, 죽음을 의학화(medicalization)하는 것은 예전에는 필요로 하지 않았던 많은 결정들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병에 대한 병명과 처방, 그리고 우리가 사는 데 남아 있는 시간의 정도를 알 권리 그리고 책임을 갖고 있다. 오랫동안 우리의 정신이 코마 상태에 빠져, 회복할 희망이 전혀 없거나, 혹은 오히려 줄어든 혹은 침해적인 의학적 치료 없이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죽길 바라는 이후에, 우리는 우리가 기계에 연결되어 생명을 유지하길 희망하는 지를 미리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포괄적이고도 고가의 의학적 치료를 원하는지 혹은 거부하는지를 미리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신체 기관이 다른 신체에 이식되거나, 혹은 우리의 신체가 의사들에 의해 해부되는 것을 원하는지 혹은 거부하는지를 미리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돈을 저축해 둘 뿐만 아니라, 고가의 치료를 위해 지불할 의료 보험에 계약함으로써 우리의 노인 세대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죽어감에 있어서 신 의학기술은 어떻게 우리가 죽을 것인 지에 대한 새로운 결정에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정들은 문화, 종교, 재정, 개인적 경험, 혹은 다른 요인들에 기초를 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선택하는 데 실패한다면,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위치에서 그러한 선택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선택에 행복해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숙고해야 한다. 이것이 고등학교 죽음교육 단위에서 제기되는 일종의 문제들

인 것이다.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죽음과 죽어감의 교육은 매우 익숙한 일이 되었다. 델라웨어와 미네소타와 같은 몇몇 학교 구역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전문 교육과정 계획자들에 의해 계획되고 있다. 델라웨어 주와 델라웨어 주립 대학은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하나의 주요한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특별 전문 위원회를 구성했다. 미네소타 주립 대학의 패트리카 잘라스넥Patrica Zalasnek에 의해 계획된 유명한 교과과정은 현재 영어권 사회의 학교들에서 폭넓게 사용되어 왔다. 콜럼바인 콜로라도와 토랑스 캘리포니아와 같은 다른 지역들에서는, 해당 지역 교육가들이 그들의 학생들에 대한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 자신들의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정신적 외상에 대응할 교과목을 만들었다.

그러나 다수의 미국 고등학교들은 교과과정에서 하나의 단일하고도 분리된 과목으로서 죽음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문학, 역사, 사회, 생명 과학, 보건, 체육, 그리고 종교처럼 죽음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과목들 내의 소단위로서 가르치고 있다. 특히, 문학은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타인의 경험을 배우고, 그런 다음 문학이 제공하는 사례 연구를 기초로 그들 자신이 겪은 기록, 편지, 그리고 에세이를 쓰기 때문에, 하나의 성공적인 접근을 보여줘 왔다.

일본에서는 정부가 십대 범죄와 자살의 증가로 인해 초, 중, 고등학교 차원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자각을 높이는 데 긴급하게 관심을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삶과 죽음교육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2005년부터 전국의 학교에서 그러한 교육과정을 시험 운영하기 위해 4백만 달러의 예산을 세워 왔다. 다수의 출판업자와 대학들도 또한 삶의 중요성과 죽음의 불가피성, 그리고 종교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십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적합한 교재를 만들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이것은 일본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전쟁 이전의 황제를 숭배하는 자신들의 왜곡된 교육을 수치스러워 하며, 대부분의 교육가들은 종교 교육의 개념을 매우 혐오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가들은 학생들이 삶과 죽음에 대한 더 나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 같은 부끄러운 역사나 종교에 대해 어떤 혐오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유교, 불교, 그리고 그리스도교 전통과 같은 전통적인 한국의 최고의 요소들을 이끌어 내면서, 한국인들이 효율적인 죽음교육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일 것이다.)

3. 대학의 죽음교육

죽음학(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연구)의 시작은 부분적으로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에게 까지 거슬러갈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주목할 만한 개척자들

로 프랑스의 필립 아리에스Philippe Aries, 영국의 거프레이 고리Geoffrey Gorer, 그리고 미국의 에른스트 베커Ernest Becker가 있다. 1978년 이후로는, 많은 미국의 단과대학과 종합대학들이 죽음학에 관한 교원을 임용하고,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내 수십 개의 대학들은 현재 죽음과 죽어감 혹은 죽음학에 관한 프로그램을 주요 특징으로 삼고 있다. 좀 더 유명한 것 중에서 런던, 온타리오의 킹스 칼리지 내 죽음교육 연구소의 존 몰간John Morgan, 미네소타 주립대학의 밥 풀턴Bob Fulton, 그리고 그의 제자들인 라크로세 위스콘신 주립대학의 밥 벤딕슨Bob Bendiksen과 게리 콕스Gerry Cox에 시작된 것들이 있다. 많은 소규모 대학들은 특히 대중들로부터 눈에 띄고 그리고 그러한 분야에 확실한 관심들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끌어오기 위해 죽음교육 연구소와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다. 예를 들어, 메사추세츠의 마운트 이다 대학은 국립 죽음교육 연구소를 세웠는데 그 연구소는 죽음교육에 충분한 관심, 활동, 학생들, 그리고 수입을 가져다주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오하이[발음 = 오-하이] 월드대학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먼 거리에서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과정들을 죽음학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다. 오늘날 수십 개의 미국 대학들은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주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대략 백여 개의 대학들이 목회적 혹은 사별 상담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수백 개의 대학들은 “죽음과 죽어감”을 이 분야를 전통하지 않은 대학신입생을 위해 일반교육 혹은 개론 과목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죽음과 죽어감의 과정들이, 대학생들이 삶, 죽음, 그리고 내세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종종 대학 캠퍼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된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일본에서는 대략 이십 여개의 대학들이 지금 죽음과 죽어감의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다. 불교 대학으로는 도교와 붓교, 그리고 온다니의 리쇼 대학, 교토의 료코쿠 대학이 포함되고, 그리스도교 대학으로는 소피아 대학, 토요일아이와 대학, 간세이 가쿠인, 성 허버트 여자 대학, 쇼인 여자 대학, 그리고 쇼와 여자 대학이 포함된다. 최근 도쿄 대학은 죽음학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일본 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았다. 교토 대학은 주요 연구 기금을 베커의 죽음 연구를 위한 개인 재단으로부터 받았다. 야마구치 현 대학은 죽음을 전공하는 학자를 위한 최초의 전임 자리를 마련했다. 무사쉬노 대학은 학생들로 하여금 (미국의 월드 대학처럼) 통신으로 죽음과 죽어감의 과목을 공부하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 대학들은 아직까지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전과정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대학들이 그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수분대로 이 모든 교과목의 내용을 요약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학 교과목들은 죽음과 죽어 감을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윤리적, 그리고 공적인 정책 문제들을 고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부 대학의 교과목들은 각각 다음 주제로 한 학기를 소비

하고, 다른 대학들은 전체적으로 전 범위를 개관한다.

대부분의 죽음학 교과목은 죽음의 사회학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의 도시화와 비인격화는 예기치 못했던 질병, 사고, 괴롭힘, 자살, 범죄, 그리고 심지어 테러로부터 증가하는 죽음의 위험을 의미한다. 반대로, 현대의 의학 기술은 종종 환자의 바람을 넘어 죽음을 연장시킨다. 노화, 불치병 치료, 그리고 죽음의 이 같은 변화된 패턴들은 우리에게 사회가 어떻게 변해오고 있는 지에 대해 충분히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회가 어떻게 진행되길 원하는 지를 묻게 한다.

선사 시대 이래로 죽음과 죽어 감은 종교와 문화의 관심이 되어 왔다. 대부분 대학의 죽음학 과목들은 예술, 시, 그리고 드라마, 혹은 더 최근에는 미디어, 영화, 심지어 컴퓨터 게임에서 뽑은 사례를 이용해 죽음에 대한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태도를 가르친다. 물론 종교와 철학의 고전적 텍스트들은 붓다, 소크라테스, 예수, 혹은 기타 순교자들과 같은 사람들의 유명한 죽음과 교훈을 선택한다. 죽음을 고찰함으로써, 이 과목들은 학생들이 삶과 죽음에 대한 학생들 자신의 가치를 형성하고, 그리고 “훌륭한 죽음”에 대한 그들 자신의 생각을 고민하도록 도와준다.(소로스 재단은 이 주제를 연구하는 많은 대학 연구소에 연구 자금을 제공해 왔다.) 종교와 죽음을 다루는 교과목들은 종교적 신념들과 의식들이 죽어감과 사별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그들은 또한 많은 죽어감과 사별한 사람들이 다른 죽은 사람들을 “보거나” 혹은 “만나는” 경험을 갖는 것을 승인한다. 망상 혹은 무의미한 것으로서의 정령들 혹은 유령들과의 접촉 대신에, 많은 미국의 대학들은 그들을 중요한 영적인 경험으로 다룬다.

죽음과 죽어감의 일부 과목들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은 죽어감의 과정들과 죽음을 둘러싼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인간적 비용을 고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들은 폭력적인 매체와 살인과 자살에 대한 게임들의 영향이나, 혹은 보건 교육 혹은 학교 상담에 대한 소규모의 투자가 앞으로의 정신적이고 의학적 치료의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정부가 위험, 해악, 테러리즘, 혹은 사고들로부터 어느 정도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고찰한다. 그들은 정부가 죽음을 감소하거나 혹은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돈을 소비하는 방법들과 대조해서 국가가 얼마만큼의 상속세를 징수하는 지를 조사할 것이다.

인간의 삶이 돈으로만 평가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신, 사랑, 그리고 생명은 경제적인 변수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투표하는 시민들인 우리는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돈을 위험한 것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결정들을 하고 있다. 날마다 우리의 정부는 어떤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세금을 지출하고 있으나, 우리의 정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충분한 돈을 지출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은 죽게 내버려 두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에어백 혹은 육교 설치에 수백만 달러(원)를 지출할 것인가?’, ‘우리는 좀 더 안전한 음식, 공기, 그리고 물을 얻기 위해, 혹은 오염된 음식, 공기, 그리고 물로부터 좀 더 일찍 질병과 죽음을 감수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원)를 지출할 것인가?’, ‘우리는 감옥에 살인자들을 가두어 살게 하거나, 혹은 그들을 처형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원)의 세금을 지출할 것인가?’, ‘많은 종류의 죽음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어느 정도의 돈을 의학적 치료를 위해 지출할 것인가?’의 질문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삶과 죽음에 대한 우리의 가치들을 명료화하고 우선시하도록 한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가 바라는 삶과 죽음을 위해 세금을 지출할 정책과 정치인들을 선택하는 것이 달려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들 외에, 우리 각자가 결정해야 하는 개인적이고 윤리적인 중요한 결정들이 존재한다. 일부 고등학교에서 이미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학생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 다루는 대학교의 교과목에서 만난다. 예를 들어, 우리의 의학적 상황에 대해 우리가 얻는 정보는 더 이상 관습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암이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기 바라는지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만약 우리가 몸을 쇠약하게 만드는 사고 혹은 병에 걸린다면, 현대 의학은 우리가 더 이상 사고할 수도 없고, 또한 우리의 소망을 전달할 수 없게 된 이후에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지를 미리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현대 의학은 “뇌사” 개념을 사용해서 뜨겁게 뛰고 있는 심장(그리고 간, 그리고 폐)을 환자의 몸에서 절제하고 그 장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우리들 각자는 여전히 뜨거우면서도 뛰고 있는 우리의 심장과 간을 기증하기를 원하는 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와 유사한 문제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었는데, 왜냐하면 그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4. 성인(종신)의 죽음교육

오늘날 미국의 십대들과 젊은이들은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그러한 주제들을 공부할 기회를 갖고 있다. 그러나 20년에서 50년 전 학생들은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동일한 주제들은 성인 교육 과정에서 매우 대중적인 과정이 되었다. 대학 혹은 지역 대학을 두고 있는 미국의 도시는, 성인들이 종종 보다 젊은 학생들과 함께 대학 과목을 수강한다. 죽음과 죽어감을 다루는 몇몇 과목들은 성인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해 야간에 실시된다. 다른 대학들은 은퇴한 사람들이나 젊은 시민들이

매우 낮은 비용으로 그 수업에 참여하게 하도록 한다. 이 같은 대학 과정들이 부족한 도시에서의 성인 죽음교육은 종종 교회나, 문화 학교, 혹은 공동체 연구회에서 가르쳐진다.

물론, 그러한 성인 교육 과정들은 이미 앞서 언급된 많은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그 과정들은 삶과 죽음의 문제들을 갖고 이미 씨름하고 있는 대학 상급생 청중들의 이해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호스피스 치료를 선택하는 방법과 가정에서 침대에 누운 채 고통 받으며 노쇠한 환자들을 위해 돌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부모 혹은 배우자의 죽음에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성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공동 연구회가 있다. 몇몇 공동 연구회는 장례와 매장 절차의 선택에 관심을 두는 반면, 다른 공동 연구회는 고인의 땅과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유서와 재산 정리 과정을 위한 법적인 조건들을 논의한다. 최근에는 병원입원, 죽음, 그리고 유언의 거의 모든 측면이 법적인 절차들과 서류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절차를 아는 것이 자신의 재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려주며 만족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대부분의 자신의 재산을 정부가 가져가 버리는 좌절을 가져다주는 죽음 사이의 차이를 생길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서로를 돌보아 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 주는 노인 공동체 사이에서도 큰 관심이 있다.

5. 전문 죽음교육

전문 죽음교육은 의학과 상담 분야에 중점을 둔다. 많은 의학교들은 죽음과 죽어감과 관련된 과목들을 도입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우리는 위에서 수백여 개의 대학들이 죽음과 사별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한 목회적 혹은 심리학적 상담 과목들을 제공하고 있음을 주목해왔다. 이 분야들을 각각 고찰해 보도록 하자.

미국에서 사별을 겪는 많은 가정들은 죽음에 임박한 사랑하는 가족의 치료에 대한 의사와 병원의 처우에 분노 하거나 만족하지 못한다. 이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사들과 병원들은 오직 병을 고치는 것만 교육 받아왔을 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사들과 병원들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모든 의학적 기술을 시도한다. 심지어 회복의 희망이 전혀 없을 때조차 그들은 환자들의 목을 절개하고, 튜브와 기계로 목을 돌려싸거나, 혹은 고통스러운 것들로 목을 채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아무 것도 없다는 “좌절”을 인정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일부의 경우, 그것은 그들의 실패나 성공에 상관없이, 의사들 혹은 병원이 그러한 수술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종종 그러한 무용하고, 침해적이고, 비인격적인 절차들로 인해 모욕을 당하거나, 분노를 하

거나, 혹은 좌절을 하게 된다.

“소비자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의학교들은 그들의 의사들에게 별도로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 교육시키는 것을 시작하고 있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치료 가능한 환자와 치료 불가능한 환자를 구분하도록 배우고,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와 무용한 치료를 구분하도록 배운다. 그들은 죽음이 개인적 좌절이 아니라, 삶의 주기의 자연적 부분임을 배운다. 동시에,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들에 대한 보살핌을 중단할 이유는 아니다. 미국의 의학교들은 점차적으로, 특히 말기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돌봄이 치료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다음 미래의 의사들에게는 완화적 병원 치료, 가정 치료, 그리고 호스피스 치료를 포함하여,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과 함께 치료불가능한 병을 논의하고, 그리고 가능한 선택을 설명하는 방법이 가르친다. 자신의 환자들의 바램, 결정, 그리고 재정을 존중하면서, 의사들은 환자와 가족들이 최대의 만족을 찾게 될 적절한 장소를 추천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의학 교육은 삶의 양적인 측면(신체가 기능을 지속하는 시간적 길이)을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삶의 질(환자의 물리적이고 정신적 자유)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리고 삶의 질을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죽음의 질(장소, 방법, 그리고 죽음의 순간의 마음 상태에 있어서 환자와 가족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으로 움직이고 있다.

죽음교육과 연관된 전문 교육의 다른 분야는 심리학과 종교 상담 분야가 있다. 죽음에 대한 단순한 전망은 폭넓은 심리학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양쪽에 있어서, 상담이 충격과 의기소침, 쇠약, 그리고 죽어감의 과정의 다른 부작용들을 감소시키는 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왔다.

우리가 침대에 누운 채 병들어 버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왜 내가 여기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 왔는가?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우는가?”를 질문한다. 자신들의 임종의 자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해 온 것들을 평가하고, 죽음이 가져다 줄 것을 고민하고, 그들 인생의 스토리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다시 생각한다. 전통적인 종교적 문화에서, 인간의 삶의 의미는, 땅을 돌보고 그리고 한 가족의 직업을 다시 물려주면서, 한 가족 세대의 사슬에 연결된 고리와 같은 것이었다. 죽음의 경험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조상들과 재회하게 될 천국에 대한 익숙한 종교적 묘사로 인해 조용하게 이해되어 졌다.

그러나 많은 현대인들은 그들의 가족과 조상들의 토지, 직업, 그리고 종교적 신앙들을 버려왔다. 그들의 삶의 의미는 더 이상 가족과 마을 전통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반추할 때, 그들은 과거의 의미와 미래의 방향에 대해 보다 큰 갈망을 갖고 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믿음을 전혀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종종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의미 없음, 공허, 허무, 혹은 익숙한 것들에 대한 영원한 상실의 두려움은 많은 현대의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큰 스트레스이다. 역설적이게도 전통적인 종교적 신앙을 갖고 있는 노인들조차 기계화된 병원의 환경 내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따라서 말기 환자 상담가의 첫 번째 임무는 편람에 써 있는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공감, 주의 깊은 청취, 환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확신해 왔던 것을 재확신을 줌으로써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의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다.

동시에 말기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 간병인, 혹은 간호사들은 종종 쉬지 않고 요구되는 말기 환자의 간호로 인해 좌절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들도 또한 그들이 말기 환자의 간호에 투자하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상담이 필요한 것이다. 사별 상담은 간병인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전에 예측한 슬픔”과 “사후의 슬픔”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됨을 보여주었다. 일부 미국의 병원들은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이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하고, 노래를 부르거나, 울거나 혹은 함께 기도하기 위한 “차-모임”에 참여하도록 하며, 간병인, 친구들, 그리고 사제 혹은 상담자를 초대해서 “사별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임은 환자가 죽을 때까지 한 달에 한 차례 정도 실시되고, 그리고 환자가 죽은 이후에도 여러 달 동안 지속되어 진다. 병원들은 그러한 “차-모임”에 시간과 돈을 들이는 것이 간병인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왔다. 흥미롭게도 그러한 모임은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가 죽은 이후 사별을 겪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사고, 병, 우울증의 비율도 줄여준다.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과 죽는 사람들을 매일 다루는 간호사들과 의사와 같은 전문가들은 한 어려운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간호사와 의사는 그들 환자의 신뢰와 협동을 잃지 않도록, 그들은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필요와 가치에 민감한 채 남아 있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더욱 민감할수록, 그들은 한 환자가 죽는 매시간 상실과 슬픔의 개인적 감각을 더욱 많이 느낄 것이다. 만약 그들이 모든 환자를 충분히 돌본다면, 그들은 이렇게 반복되고 지속적인 상실의 감각으로부터 쉽게 병에 걸리거나 혹은 기력을 “소진”한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상담이 꼭 필요한 것이다. 종교적 신앙(죽음 사람들이 천국의 세계에서 삶을 지속하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제 혹은 목사와의 대화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다. 종교적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조차 공감적인 경청자와의 소통을 통해 용기와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 외에 장의사, 사제, 그리고 경찰과 같은 전문가들도 죽은 사람들과 사별을 당한 가정의 끝없는 흐름을 다루어야 한다. 사별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 혹은 최소한 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전문가들도 기본

적인 상담 기술을 필요로 한다. 때때로, 그들 스스로도 또한 침울하게 하는 직업에서 에너지 혹은 낙관을 회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필요로 한다. 죽음은 결코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아니나, 다정한 경청자들에게 상실로 인한 의기소침과 고통을 경감시키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힘이 되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국의 병원들과 호스피스 기관은 자신들의 성공을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의존한다. 특히 말기 환자들과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의학적 기술이 아니라 따뜻한 돌봄이 바람직하다. 이런 경우에, 자원봉사자들이 특히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은 전문적인 훈련과 자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상담을 필요로 할 지도 모르는 문제들의 범위에 직면한다. 자원봉사자들은 그들 자신이 병원의 직급 구조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환자가 죽은 후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 이상으로 충분히 혹은 만족스럽게 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자책할 지도 모른다.

자원봉사자들은 가장 먼저 매우 도전적일 수 있는 죽음에 맞닥뜨린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사후 설명(debriefing)하고, 힘을 북돋워주고, 그리고 강하게 하는 것도 호스피스와 말기 환자 병동에서의 전문 상담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하고 지지해야 하는 임무가 된다.

우리는 죽음과 죽어감에 관련된 상담이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 사역하거나 돌봐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부 대학들, 세미나, 그리고 전문학교들은 이러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AAGC(American Academy of Grief Counseling)에서 ADEC(Association for Death Education and Counseling)와 같은 전문 기구들은 이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들에게 공식적인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한 인증은 상담자를 위한 높은 수준의 전문적 표준을 정할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상담의 사회적 자각을 확대시키는데도 공헌을 한다.

30년 전 내가 하와이 대학의 대학원생으로 처음 죽음학 연구를 제안했을 때, 나의 교수 중 한분은 나에게 그 연구를 포기할 것을 충고했다. 왜냐하면 죽음학은 “잠시의 유행”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사라지는 죽음의 문제를 기대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오늘날, 죽음학과 죽음교육의 대중적 관심은 저널, 출판업, 그리고 그러한 주제에 헌신한 단체들의 폭넓은 범위에서 반영되고 있다. 오메가Omega, 죽음교육Death Education, 모탈리티Mortality, 근사죽음학 저널Journal of Near-Death Studies(내가 후자의 두 저널을 발행한다)과 같은 저널들은 죽음과 죽어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게다가 상담, 간호, 치료, 그리고 종교에 관한 다수의 저널들은 점점 늘어나는 지면을 죽음과 관련된 주제의 논의에 할애하고 있다. 베이우드Baywood, 헤미스피어

Hemisphere, 그리고 찰스 프레스Charles Press와 같은 출판사들도 죽음과 죽어감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주요한 대학들과 상업적 출판업자들은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책을 출판하며 수익이 있는 시장을 찾아 왔다. “죽음과 죽어감”은 많은 책의 종류에서 한 중요한 단어이고, 많은 서점들의 선반 위에 놓인 전문어의 표제이다. 미국 내 많은 공동체들은 호스피스를 갖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말기 환자 돌봄과 죽어감 혹은 사별에 관련된 자원봉사자 조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은 죽음학과 죽음교육에 수천 쪽을 할당하고 있다.

Ⅲ. 결 론

나는 한국의 죽음교육 혹은 죽음학이 미국식 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한국인들이 그들 자신의 문화와 필요성에 바탕을 두고 한국인들 자신의 죽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오늘 나의 몇몇 논의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중심을 두었다. 확실히, 우리는 지금 죽음교육과 상담에 대한 투자가 건강 보건, 범죄, 그리고 노동 생산성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간과 돈을 절약한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죽음교육과 상담에 대한 대중들의 요구는 책과 잡지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좋은 시장을 산출한다. 그 같은 비용효과와 시장요구가 확실히 행정 관료들과 정책입안자들이 죽음교육과 상담에 관심을 표명하는 이유들이다.

그러나 죽음과 죽어감을 연구하는 가장 실제적인 이유는 세금이 절약되거나 교실 폭력이 줄어들어서, 혹은 노동 생산성의 증대에서 오는 달러나 원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죽음과 죽어감을 연구해야 하는 보다 심층적인 이유는 우리 또한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을 잃을 것이고, 우리 또한 죽을 수밖에 없다는 피할 수 없는 사실 때문이다. 삶을 반추하고 죽어감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어떠한 만족을 찾으려는 마음의 행복에 대한 영적인 가치, 곧 의미의 인식은 시간과 돈으로만 판단될 수 없는 것이다. 하나의 평화적이고, 의미 있고, 혹은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는 죽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승인의 표시”와 같은 것이다. 아무리 인생이 행복하다 할지라도, 만약 마지막 몇 개월 혹은 며칠이 홀로 그리고 비참하게 남겨져 있다면, 완전히 행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마지막 시간들이 공허하거나 혹은 무용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곧 그들은 더 이상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느낀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들이 무엇을 해 왔고, 무엇을 하길 원하는 지를 두고 다정하게 대화를 나눈다면, 우리는 그들이 아직도 그들의 마지막 시간에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찾는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 자신의 방을 정리하거나 혹은 적절하게 자신들의

일을 정하지 못해 왔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일을 계획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할 힘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그들이 집에 있는 물건들을 사진으로 찍어 그 사진들을 병실에 가져와서 그들이 각 항목에 대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자신들의 유서를 쓰지 않았다. 유서는 자신의 재산을 가족에게 남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기억을 남겨줌으로써 많은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하나의 기회인 것이다. 한 친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는 만년필, 가야금, 혹은 바둑 게임은 상점에서 구입하는 동일한 물건보다 한층 더 값어치 있는 것이 된다. 유사하게, 일부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기에 앞서 감사, 사과, 혹은 개심의 편지를 쓰거나 혹은 구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과거에는 전 가족들이 주의 깊게 그들의 마지막 유언을 기억하고 그들의 마지막 소원을 존중하기 위해 죽어가는 사람의 임종의 자리에 둘러 모였다. 오늘날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병원에서 죽게 되고 아이들도 매우 바빠 멀리 떨어져 있어 노인의 마지막 유언을 듣기 위해 전 가족이 모이기가 더 어렵다. 그러나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이 희망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마지막 유언과 소원을 비디오테이프를 사용해 기록할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친구나 가족들에게 전할 말을 준비하고 연습하면서 몇 주간을 보낸다.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 수개월 혹은 수일 동안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죽기에 앞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한 옛 친구를 만나거나 한 옛 영화를 보거나 혹은 한 옛 노래를 듣기를 희망한다. 자원봉사자들이나 상담자들이 그런 사람들 혹은 수당들을 찾을 수 있고,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에 웃음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장례식에서 몇 가지 특별한 음악 혹은 한 책에서 뽑은 글이나, 혹은 그들 가족의 기념 단상 위에 특정한 꽃이나 사진을 포함해 주기를 원한다.

죽음은 즐거운 일이 아니다. 죽음은 암에 걸린 상태처럼 물리적으로 고통스러울 것이며, 혹은 일격을 받은 것처럼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이 확실히 올 것임을 숙고하고 그것에 대비하는 것의 실패가 우리를 무안하게 할 것이다. 죽음을 반추하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고통을 경감할 방법들을 계획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좀 더 나은 의미 혹은 완전함의 의식을 증가시킬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 미리 죽음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울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 온 삶으로부터 의미와 에너지를 빼앗아버리는 사별의 고통에 직면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준비할 수 있고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하는 시간이 왔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나는 내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해 왔다.”고 말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마도, “나는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가 돼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각 순간이 가치 있을 수 있음을 느끼게 한다. 오늘은 결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여기 같은 방에서 다시 서 있지 못할 것이다. 여기 서울에서의 소통과 교제의 시간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만들고, 매 순간을 의미 있게 하고, 죽음을 공부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을 위한 대비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어떻게 하면 깊이 있고, 의미 있고, 그리고 충분하게 건전한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공부이다. 죽음교육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도록 하는 삶의 교육인 것이다.